

엔터테인먼트

5월 음반 수출 동향 및 코멘트

엔터/레저

Analyst 김민영

minyoung.kim02@meritz.co.kr

5월 음반 수출액 데이터

Meritz Research 2026. 6. 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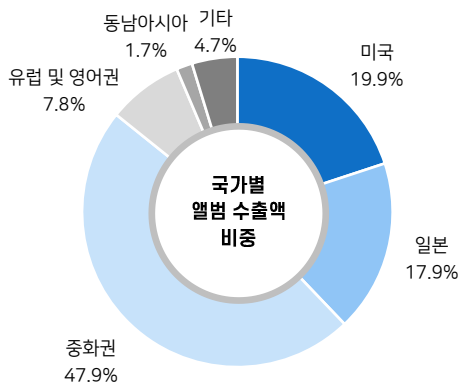
- 전체: 4,349만달러 (+90.2% YoY, +4.5% MoM)
 - 미국: 867만달러 (+42.0% YoY, -34.0% MoM)
 - 일본: 780만달러 (-5.7% YoY, +45.1% MoM)
 - 중화권(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)
: 2,083만 달러 (+346.9% YoY, +37.3% MoM)
 - 동남아시아(태국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)
: 72만 달러(+60.3% YoY, +27.1% MoM)
 - 유럽 및 영어권(캐나다, 프랑스, 영국, 독일, 호주, 네덜란드)
: 341만 달러 (+63.6% YoY, -30.1% MoM)
- 국가 비중: 중국 37.7%, 미국 19.7%, 일본 17.9%

수출 동향 및 코멘트

- 5월 글로벌 음반 수출액은 4,349만 달러(+90.2% YoY, +4.5% MoM)로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 기록. 2월부터 네 달 연속 역대 최상위권 수출액을 기록 중이며, 연초 음반 수출액 추이는 2023~2024년 앨범 호황기 당시를 상회하는 매우 고무적인 수준. 특히, 5월은 코르티스, 에스파, 르세라핌, 제로베이스원, 앤더블(장하오, 리키, 김규빈, 한유진, 유승언 / 제베원+이븐 출신 5인조) 등 주요 아티스트 다수 컴백
- 중화권은 2,083만 달러(+346.9% YoY, +37.3% MoM)로 전 지역 중 1위를 기록. 그 중 중국향은 1,642만 달러(+666.8% YoY, +41.0% MoM)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(직전 최고치 25년 12월 1,507만 달러). 중국향 비중은 37.7%로 단일 국가 기준 1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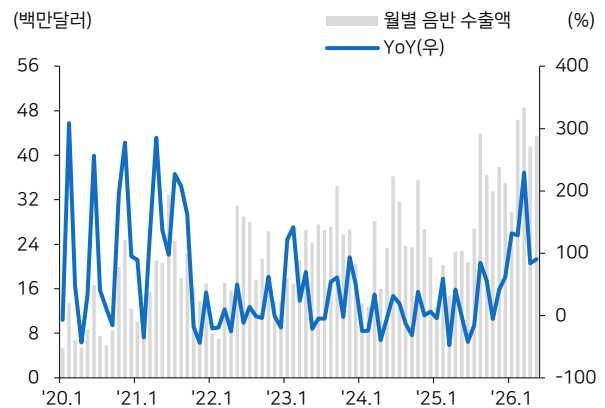
- 5/4 코르티스(초동 231만장), 5/26 앤더블(초동 73만장), 5/29 에스파(초동 90만장) 등을 주요 아티스트 컴백을 중심으로 중국 공동구매 수요 집중되며 5월 중국향 수출액 급증했을 가능성. 연초부터 중국 공구 수요가 급증했던 23~24년 고점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
- 미국향 음반 수출액은 867만 달러(+42.0% YoY, -34.0% MoM)로,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, 전년 대비 성장하며 견조한 흐름 유지. 유럽 및 영어권도 341만 달러(+63.6% YoY, -30.1% MoM)로 유사한 흐름. 1분기 누적 미국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, 글로벌 시장 내 아티스트 저변 확대가 확인되고 있음. 실적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, 중장기 음반 ASP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
- 6월 미국 대형 음악 페스티벌 ‘거버넌스 볼(Governors Ball)’에 스트레이키즈, 제니, 캣츠아이 출연, 6/2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‘알로뱅크 페스티벌’에는 코르티스, 7/30~ 미국 ‘롤라팔루자 시카고’에는 제니, 에스파, 아이들, 코르티스, 8월 미국 ‘헤드 인 더 클라우드’에는 캣츠아이(헤드라이너), 9월 브라질 ‘록 인 리오’에는 스트레이키즈가 헤드라이너로 출연 예정. 글로벌 대형 페스티벌 출연 이후 팬덤 유입에 주목할 필요
- 현재 디레이팅된 멀티플(12~15배(하이브 제외)) 대비 견조한 펀더멘털 지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12M Fwd P/E 18배 이상의 멀티플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

그림1 5월 기준 음반 수출액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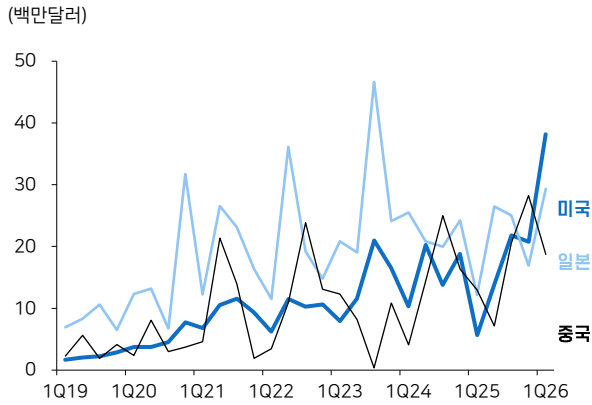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월별 음반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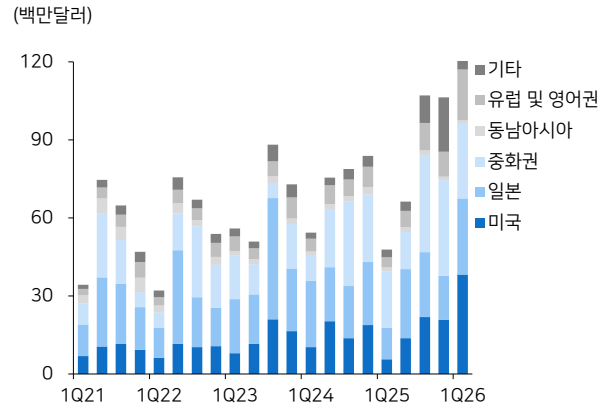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분기별 미국, 일본, 중국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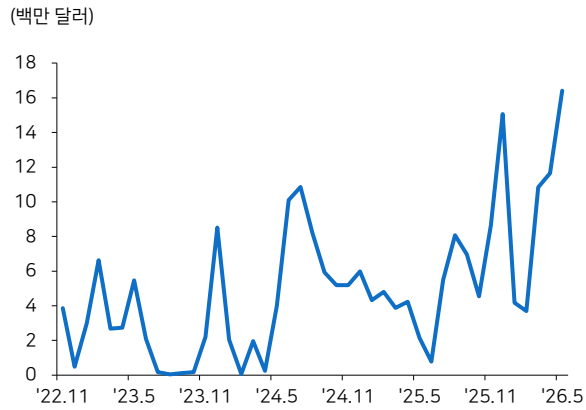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지역별 음반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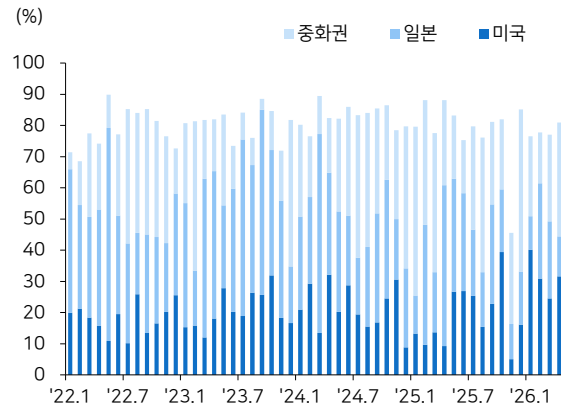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월별 중국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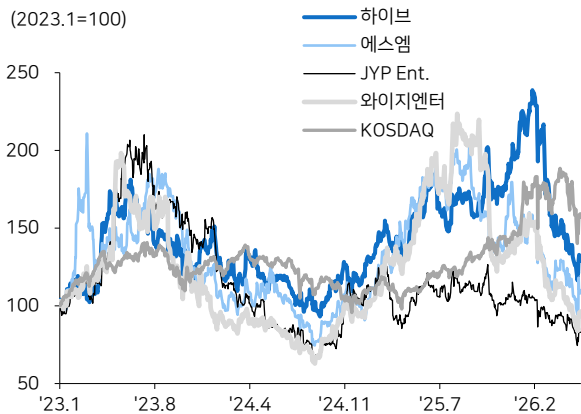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월별 미국, 일본, 중국 비중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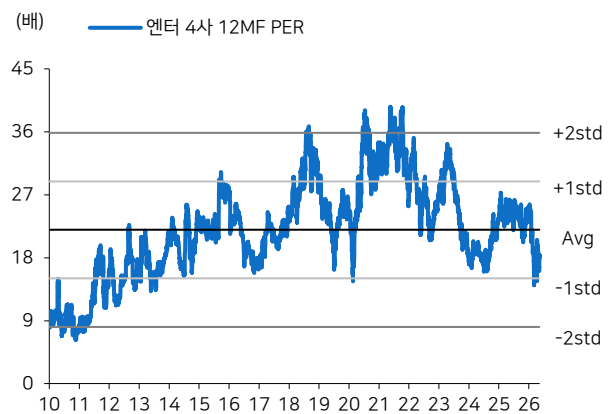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7 엔터 4사 상대주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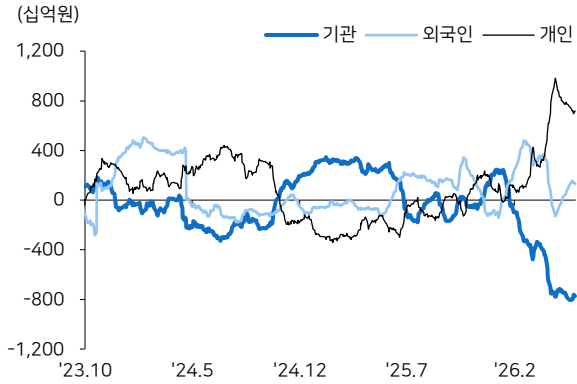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8 엔터 4사 12MF PER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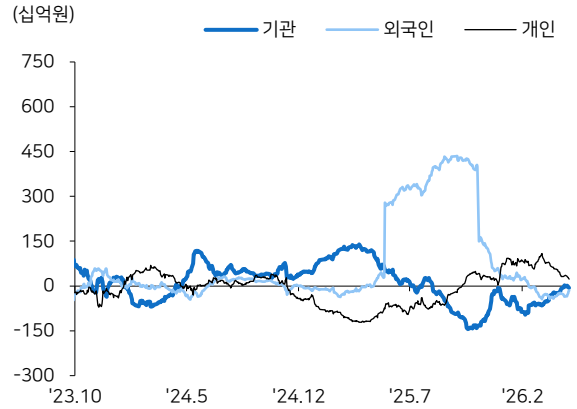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9 하이브 120일 누적 순매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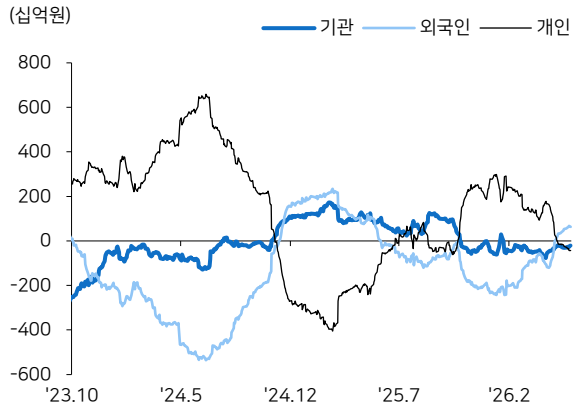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0 에스엠 120일 누적 순매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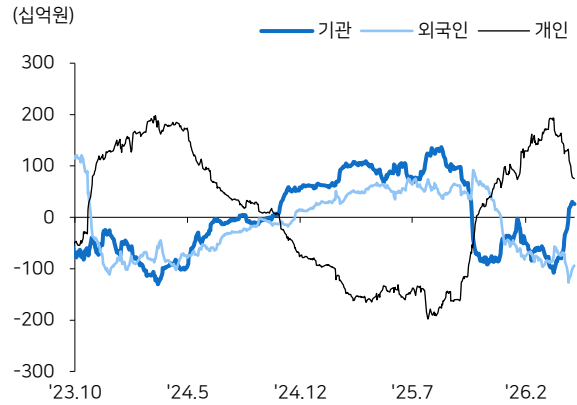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1 JYP Ent. 120일 누적 순매수 추이



자료: FnGuide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20일 누적 순매수 추이



자료: FnGuide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